

겨울 산사 문화체험 '참나' 찾아 떠나보자

또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시기, 연말 분위기에 권스레 마음이 들뜨다가도 지난 해를 돌아보며 가슴 수련하는 기운을 느끼고 싶을 때, 이 같은 겨울 산사 문화체험을 준비하고 싶은 시간, 그렇다면 겨울 산사를 찾자.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을 들고, 왜 지금 내가 힘든지,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며 자기에게 한 발짝 다가 보자.

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겨울철 산사 문화체험을 마련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겨울 산사 문화체험을 준비하고 싶은 시간, 그렇다면 겨울 산사를 찾자.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을 들고, 왜 지금 내가 힘든지,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며 자기에게 한 발짝 다가 보자.

고불종림 백양사는 큰 사찰로는 유일하게 27~31일, 1월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참사랑 수행 길사' 수련회를 갖는다. 전 조계종 총정서용 큰 스님의 법문과 화두간택, 좌선의, 선종사 등의 불교교리 강의가 있으며 마음과 몸을

백양사 '참사랑 수행길사' 원명선원 '삼매체험 선수행' 도심 재가선방도 문 활짝

동시에 닦을 수 있도록 참선과 겨울 산행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061)392-7502
경남 하동 쌍계사의 산내 암자인 국사암은 올해 처음으로 산사 문화 체험을 마련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린 수련회는 차와 법계의 고정담계 참선과 함께 불교음악, 차 마시는 법, 불교예술품 등 불가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055)883-8801~3
96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겨울철 선수행회를 시작한 전남 고흥 송광암은 22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박4일 일장으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연다. 적대봉과 금강 해수



○연말이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싶다면 사찰의 겨울철 선수행회를 찾아 '참나'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욕장 등에서 펼쳐지는 좌선과 행선, 선 채초, 호출법, 화두잡는 법,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061)843-8488
전남 구례 연기암도 겨울철 선수행회를 개설했다. 4박5일 일정으로 22~26일, 내년 1월 3~7일 열리는 수련회는 하루 8시간 참선을 중심으로 예불, 선경좌, 화상사 및 주변 암자 순례, 금강경 독송 등을 준비했다. (061)782-0588
제주 한라산 원명선원은 23~27일 '삼매 체험 선수행'을 개최한다. 타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수행을 체질화하기 위해 4박5일 동안 수행중

사이버 문화 한국의 석탑

석탑 순례와 유적 여행

다보탑, 강은사지 삼층석탑,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 등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석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석탑(http://my.netian.com/~avao34)에서는 불탑의 기원에서부터 불탑신앙과 사리, 석탑 양식 등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김인식씨는 6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불교유적지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석탑과 불교문화를 사이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신라말 산적여왕 때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불두법(佛頭法), 차아사리, 사리 등 1백법을 가져와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 동기가 되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 말기에 발생하기 시작한 석탑의 건립설화에서 알 수 있듯 부처님 사리의 전래는 사리 불안을 위한 탑이 사리 내에 건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태극 종국 등의 불교유적 사진도 곁들여 다양한 석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 석탑 목록을 제공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들려오는 종소리와 맑은 풍경소리는 산사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석탑의 부분명칭과 설명도 이 홈페이지의 특징 중 하나다.
권형진 기자(jiny@buddhopia.com)



권형진 기자(jiny@buddhopia.com)

화엄석경과 법화석경의 만남

'한국서예 2000년전' 29일부터 예술의 전당

전남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은 통일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장유진(현각향전)을 건립하면서 석판에 화엄경을 새겼다고 전해지는 유물이다. 화재로 조각나 파편으로 전하지만 불교사 연구뿐만 아니라 금석학 등의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 화엄석경을 탁본으로나마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부터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리는 '한국서예 2000년전'은 한국 서예사 2000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내년 2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유물은 모두 180여 점. 우리 서예사의

큰 흐름을 밝히는 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작품들만 엄선해서 내놨다. 삼국~통일신라 시대 작품은 주로 금석문 탁본이며, 고려시대는 사경, 조선시대의 것은 목각이 주종을 이룬다.
이 가운데 금석문 탁본과 사경은 종교적 차이를 넘어 서예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김경의 '태자사남공대사탑비명' 최치원의 '왕계사진갈선사대공탑비' 탄연의 '청량산문수원 중수기' 이항추의 '수미산장조사진갈대사탑비명' 등 희귀 고찰본들이 출품됐다. 경주 첨립사지 출토 법화석경도 첫 산을 보인다.
이밖에 인광대군의 '법상좌찬' 퇴계 이황의 '퇴도필법' 석봉 한호의 '천자관'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등 당대의 문장가, 명필들의 주옥같은 작품도 볼 수 있다. (02)580-1300 권형진 기자



조선시대 대표작가 30명 작품 '한 자리'

대림화랑 '... 좋은 그림전'

개관 이후 꾸준히 조선조 회화전을 열고 있는 대림화랑에서 97년 고공명현 유목전 이후 3년만에 조선시대 고서화전을 연다.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조선시대 좋은 그림전'이다.
이번에 내놓은 작품은 모두 60여 점. 탄은 이정을 비롯해 경채 정선, 수은 유덕장, 현재 심사정, 포암 강세황, 오원 장승업, 심전 안중식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30여 명의 작품을 모았다.
중국적인 그림을 잘 그렸던 것으로 알려진 현재 심사정(1707~1769)의 작품은 복송시대 그림을 모방한 것들이다. 그

중 말년에 짙어 머물며 그렸던 '관자 재보살도'가 눈길을 끈다. 복송시대 명화가 화희의 그림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필의(筆意)는 약간 떨어져 아쉬움을 준다. 조선 후기에서 근세 초에 활약했던 석재 서병오(1862~1935)와 해강 김규진(1868~1933)의 연꽃 그림 두 점도 눈 여겨볼 만하다.
대나무 묵죽화의 대가 탄은 이정(1541~1622)의 묵죽도 두 폭은 소품이지만 단아하고 그윽하다. 반면 대나무 그림으로 두 번째라면 서운해할 수는 유덕장(1694~1774)의 묵죽도는 보는 사람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02)733-3738 권형진 기자



연말연시 마음의 선물

향... 합장주... 참선용 방석...

'주고 받고 부담없다'

여기저기 선물할 때가 늘어나는 때다. 그날 넘어가게는 그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마음이 걸린다. 부담없는 작은 선물, 마음의 선물이라도 준비해 보자.

불자라면 선물의 크고 작음보다 그 정성이 문제일 것이다. 향이나 초, 합장주, 염주 등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받으면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선물이다. 합장주나 염주의 경우 육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목걸이나 휴대용 길지도 즐겨 찾는 것 중의 하나다. 목탁은 전통적인 메뉴고 호신불이나 경전 한 구절이 새겨진 것도 골라볼 만하다. 뒷면에 자기 피가 그려진 호신불은 휴대용 스티커로도 많이 쓰인다. 차걸지도 많이 찾는다.

부모님을 위해서는 건강제품이나 패션 소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필통갑이나 모자, 덧바선 종류 등이 나와 있다. 체형에 맞춰 제작한 합선용 방석은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준다.
어느 때든 선물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책이다. 요즘은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작은 경전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준비한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카드나 연하장에 간단한 마음의 글을 적어 함께 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형진 기자

○위에서부터 향꽃이, 합장주와 복주머니, 초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민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오주름등 (빨강, 연두, 노랑) **궁만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팔오조립등 (빨강, 노랑, 옥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슬기샘 혜암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대鶴堂 혜암의 원력이 담긴 세계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 수행에 걸맞은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학 번상도 시리즈 전권 선사화 특별 보급안내!

● 각 사찰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복덕상화	2. 부부상화	3. 사업상화	4. 심부상화	5. 가내상화(불자지킴이)	6. 율령상화
7. 재상상화	8. 원성상화	9. 삼부상화	10. 입상재상화	11. 중상재상화	12. 출상재상화
13. 병고상화	14. 돌상상화	15. 칠상상화	16. 인연상화	17. 관재상화	18. 입상상화
19. 신정상화	20. 무사상화	21. 퇴가상화	22. 방생상화	23. 거북상화	24. 상의상화

○ 위 수익금은 슬기샘 박물관 건립 기금에 쓰여집니다. ● 위 학 번상도 및 수선도는 혜암선님이 천진기도 수행후 직접 그린 작품으로서 다소 규격이 변형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鶴)이란 뜻부터 재가 친목회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어겼으며 천년만에 무번으로 번하여 칠학(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번하여 천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기에서는 삼신이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학을 구축하고 신으로 인도하는 이치를 배우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번암 안천암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봉에 즐거가 나타나 지게 늘 지키고 있다.

● 학(鶴)이란 뜻부터 재가 친목회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어겼으며 천년만에 무번으로 번하여 칠학(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번하여 천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기에서는 삼신이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학을 구축하고 신으로 인도하는 이치를 배우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번암 안천암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봉에 즐거가 나타나 지게 늘 지키고 있다.

● 학(鶴)이란 뜻부터 재가 친목회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어겼으며 천년만에 무번으로 번하여 칠학(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번하여 천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기에서는 삼신이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학을 구축하고 신으로 인도하는 이치를 배우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번암 안천암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봉에 즐거가 나타나 지게 늘 지키고 있다.